

## 엔데믹 시대에 공동체성 회복과 관계성의 공간

김광연 (송실대학교,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코로나19에서 팬데믹으로

1. 코로나19와 패러다임의 변화
2. 모임 공동체의 상실과 마스크를 쓴 타자

### III. 엔데믹(endemic) 시대의 모임 공동체 회복과 공간의 친밀성

1. 칼 바르트의 '사건'으로서의 모임 공동체와 관계적 존재
2. 레비나스의 '관계성의 공간'과 '공간의 친밀성'
3. 마스크의 얼굴에서 민낯 얼굴로

###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5>

---

• ABSTRACT •

---

## Restoration of Community and Space of Relationship in the Age of Endemic

Kim, Gwang-yeon (Research Faculty, Soongsil University)

Until now, we have been through the non-face-to-face society of the last COVID-19 era. As a result, the church could not hold services in the sanctuary. Small gatherings and group activities were suspended, and even small gatherings for religious life were prohibited. Also, while our society went through Covid-19, people experienced too much psychological shrinkage. As the endemic era comes after COVID-19, our society has become busy transitioning to the face-to-face system. Churches were allowed to worship in their buildings, and small bible studies and group activities for faith resumed.

With the complete restoration of the face-to-face system as a social structure, we have been given a new task for the Korean church to pursue. Levinas now offers us an alternative. Levinas says that others' pain and suffering are areas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community. In the age of endemic, he tells us to "have a face-to-face meeting with the other in an intimate space." The faces of others are always waiting for us, and now we can get close to them. The pain shown on the faces of others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community.

**Key words:** Post Corona, Endemic, Face-to-face Society, Space of Relationship, Proximity, Christian Community

---

## IHKLJ + M

지난 2~3년의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큰 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기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사회가 고 화 되고 이 미 우리 사회는 온라인 시 템으로 인한 사회 화에 무 해 다. 온라인 시 템은 교 과 직장에 큰 화를 주 다. 수업 정 화를 위해 학교 교 은 온라인 화 을 통해 수업을 진 되 다. 직장에서는 주로 재택근무를 통해 시간 화 (쪼)으로 회의를 진 하게 되 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 다. 이는 교 동 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 교회에서의 모임은 최대한 여나갔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신 생 도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 되는 시기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시 템이 사회에 자리 게 되면서 공간의 화와 더불어 로 신 생 의 모습들이 등장 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대면 예배에 대한 갈급 도 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 임을 소홀 패러다임의 전환 역 시 불가피한 경 을 몸소 체 다.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설교와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의도 고, 로 모임 공간의 화로 인한 공동체의 방향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 다.

이제 코로나19의 식이 가까워지면서 로 엔 믹 시대가 도 하 게 되 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 기 천으로 인의 굴을 마주대하는 시간을 가 수 없 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는 자와의 관계성뿐만 아 라 자에 대한 임 더 나아가 사회적 교 와 임까지 소홀하게 되 다.

이에 이 은 엔 믹 시대에 른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와 공동체의 모임 그리고 인의 굴을 대하면서 생기는 관계성과 그 임을 논의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 이 은 칼 르 의 모임 공동체를 펴보고

그 동안 되 성도의 모임과 관계에 대해 논한다. 이 에서 칼 르 의 ‘모임 공동체’와 레비나 의 ‘관계성의 공간’을 다룬 이유는 코로 나19로 인해 그 동안 사회적 거리 기 천으로 소원해 성도의 교제 회 과 관계적 재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 이다. 이 은 레비나 의 자의 굴과 임을 다 면서 그 동안 우리가 뒷전으로 미뤄 대 면을 통한 자와의 관계성, 성도의 모임 공동체 회 그리고 자에 대 한 우리들의 임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고 있다.

## IIHØNbŬj O ŬghTN

“HGf`I` MKJ L 7 ! ”

코로나19가 한 일 때, 전 세계는 팬 믹을 선 하고 림픽을 한 국제 사는 이 취소되 다. 코로나19는 국제적 사 뿐만 아 라 경제적인 손 에도 청난 여 를 가 왔다. 자영업자들은 출이 반 토 이 나고 여러 지자체 모임 등이 이 취소되면서 경제적 소 은 이 해야될 수 없게 되 다.

코로나19 이러 로 전 세계 사 자수가 공식 보고 것보다 2배 이 다는 구가 되 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강 정평가 구소 는 코로나19로 인해 사 자수가 693만명으로 정 다고 다.<sup>1)</sup> 여러 의 이 이러 가 꺾히면서 사람들이 더 이 모일 수 없는 사회적 거리 기가 불가피하게 것이다.

코로나19는 신 감염 으로서 감염원의 징과 경로 그리고 치명 정 도 등을 가늠할 수 없고 려지지도 않아서 이러 의 공 는 더욱 커 갔다. 사람들은 려지지 않는 감염 으로 인해 주위에 누가 이러 에

1) 문화일보, “전 세계 코로나 사 자 690만명”, 2021년 5월 7일자 기사.

노출되 는지 불안에 떨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호소 다. 수시로 체온을 재거나 목이 하고 칼칼할 때 시나 하는 마 과 감염의 신호가 아닌지 이러 공 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sup>2)</sup> 더 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기는 일 의 모든 화를 가 왔다. 직업, 학교, 취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리적 거리를 게 만들 고, 이에 른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염려, 사회적 단절 등의 다양한 심리적 과제를 낳고 다.<sup>3)</sup>

감염으로 인한 공 는 와 낙인 그리고 차별까지 이어지게 되 다. 주위에 누가 한명 이러 에 노출되면 주위에 누가 걸렸다거나 누구 에 환자가 생 다는 등의 혐 와 낙인 때문에 마 아픈 기억도 지울 수 없 다.<sup>4)</sup> 심지어 감염자에 대해서는 공간의 리 뿐만 아 라 그 가 들까지 비난하는 문제가 생되 다. 코로나19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그 가 의 신 까지 려지면서 비난의 대 이 것이다.<sup>5)</sup>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는 지 전환에도 가속도를 이게 다. 우리는 이러 공 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강수를 고 지 교 을 에 기게 되 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로 도전과 지 차에도 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경 다.<sup>6)</sup>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 원 근무 중심으로 근무 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 직장처럼 일을 하는 대안 근무가 시 무대에 랐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재택 근무 비중이 그다지 지 않 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약 60% 정도가 재택근무를 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

2) 김수 외 12인, 『 코로나 사회』, (서울: 도서출 향아리, 2020), 95-96.

3) 고규영 외 16인, 『코로나 사이』, (서울: 동아시아, 2020), 159.

4) 김수 외 12인, 『 코로나 사회』, 100-101.

5) 이 원, “혐 에서 공감과 환대어로”, 『기독교사회윤리』 49권(2021), 113.

6) 세 외 15인, 『코로나 시대 한국의 미』, (서울: 서울 렉 , 2020), 103.

다 재택근무 비 에 있어서 다.7)

코로나19는 주일과 예배의 모습에도 은 화를 가 왔다. 대 교회 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른 대처로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출할 수 있 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교회와 개척교회 들은 온라인 예배를 릴 수 없는 환경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가정예배로 대체되 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를 릴 수 없는 에서 성도들 이 온라인 예배를 리면서 교회 내에서는 온라인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그 어 때보다 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 교회를 비롯해서 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를 리면서 이에 대한 신 적 고민거리들이 커 갔다. 하지만 교회 가 사회적 임에 대한 응 으로 사회적 거리 기를 천하게 되 고, 이에 온라인 예배는 다른 신 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게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자 이 서서 보이는 시 에서 우리는 그 동안 코 로나19로 인해 화 사회 구조적인 고민들과 교회에서의 신 적 화 들 그리고 비대면 시 템에 해진 도덕적 천 대한 로 접근들이 요하게 되 다.

## Z·NL #BO7 QRP TUVS WYX

코로나19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리는 신 의 를 기해 할 지 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 기 일환으로 교회는 더 이 모일 수 없는 에 직면 고, 교인들은 예배와 교제를 프라인 (온라인)에서 여해 다.8)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성도의 신 에는 여러 화가 찾아왔다. 그 동안 한국 교회가 단주의 신 의 에서

7) 위의 , 76-77.

8) 안재경, 『코로나 예배 전쟁』, (서울: 세움북 , 2021), 18-19.

개인주의 신 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개인의 신 과 결단을 강조하는 기회라고 보는 의 도 있 다. 한 예배는 ‘반 시’ 프라인에서 가 하다는 에 대한 전환도 로 화라고 보는 시선이 등장하기도 다.)<sup>9)</sup>

코로나19 이전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개 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 고, 일방적으로 신 자 와 교 등의 내용을 전 하거나 출하는 사용되 다. 그 동안 우리들은 신 생 을 하는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 자 나 학습 등 인 넷에서 신학 자 와 신 생 에 도움이 되는 교 자 등을 얻는 만 사용 다. 그리고 교회에서 임 목사의 설교 나 신학적 토 등의 영 을 시청하는 정도로 그쳤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기는 온라인을 수단으로 하는 신 생 에 큰 화를 가 게 것 이다.

과거 코로나19의 진이 누그러지지 않는 에서 대 교회들은 온라인 츠를 개 하는 정성을 다. 하지만 대면예배에 해 있는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의 전환으로 인해 영 의 화 이나 적인 면 그 리고 인 넷 접속 등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 생 에 부정적인 영향을 것으로 조사되 다.<sup>10)</sup>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예배와 신 생 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 아 라 ‘ ’ 하나 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 있 다. 우리는 성도들이 ‘ ’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 있 다. 그 서 개인적인 경 의 시간과 모여 예배 리고 기도하는 습관 이 호 조화가 되어 한다고 생각 다.<sup>11)</sup> 하지만 코로나19는 사회적

9) 위의 , 19.

10) 유지은,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 과 만 도 구”, 『기독교교 논총』 제72 (2002), 239-240.

11) 안재경, 『코로나 예배 전쟁』, 116.

거리 기 천을 요구 고, 교인들은 이러 전 를 차단하기 위해 더 이 모임을 가 수 없 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는 단 한 교적 위를 넘어 하나 을 만나는 장(場)이라고 간주 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적인 모임 자체를 허용하지 않 고,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제약 을 수 에 없 다. 이러한 에서 공적 모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그 어 시대보다 중요하게 것이다.

무 보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공적 모임의 은 가지의 화를 가 왔다. 우선 공동체에서 신 생 을 하 패턴의 화이다. 공적인 예배와 시간들이 어들고, 공적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 다. 세계최 대의 대 교회인 여의도 교회는 코로나19 산 방지를 위해 당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 다. 여의도 교회는 예배를 비롯 해서 모든 공적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회와 주 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 다.<sup>12)</sup> 이로 인해 공동체에서의 공적 모임 뿐만 아 라 사적 모임도 정적으로 중단되 다. 즉 공동체에서의 신 의 는 해 체되고 대신 사적인 시간이 어나게 되 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시에 은 장소에서 여 하는 장소의 패러다임을 꺾 놓 다. 대면 예배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수용 우리 사회에서 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예배 와 장소의 전환에 대해 고민이 시 것이다.<sup>13)</sup> 이러한 공간의 화 에 른 신 과 예배 그리고 대면 선교의 화는 불가피 다. 동시에 이 러한 코로나19의 은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교 에 로 패러다임의 화를 가 왔다. 비대면 온라인 선교와 교 은 원 교 의 로 화

12) “여의도 교회 2주간 온라인 예배 전환”, 국민일보, 2020년 8월 18일 기사.

13) 성영은 외, 6인, 『 코로나와 교회의 미 』, (서울: 생명의 양식, 2021), 179.



되어서 동시적 공간의 사용에 해체를 가 왔다. 비대면 에서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원 의 로 전환 예배와 교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모임은 더 이 피할 수 없는 로 다가온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시 템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위기 을 경 다. 로 ‘ 자의 굴보기’의 이다. 대면을 거부하는 사회적 거리 기로 인해 우리는 자에게 다가갈 수 없 고 온라인(화 )으로서만 그들의 굴을 수 에 없 다. 그만 사회적 거리 기는 인의 굴을 직접 수 없게 만들고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리적 간 은 더욱 어 다. 이에 른 자에 대한 임의 결여는 당시 사회적 거리 기와 무관 하지 않 다. 사회적 거리 기로 인해 굴을 마주할 수 있는 대면기회의 과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리는 모임 시간의 로 인해 자와의 관계성의 까지 이어지면서 그 어 때보다 자의 굴을 요청하는 시대가 요 다.

사회적 거리 기로 인해, 자와의 굴을 마주할 수 없는 구조에서 우리는 한 학자를 요청하게 되 다. 로 레비나 (E.Levinas)가 제시 한 자의 굴이다. 그는 자의 굴에 대해 하고 그 굴은 단 재 적 의미로서의 등장이 아 라 자의 입과 결시 고 있다. 그는 자의 굴의 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을 요청한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의 굴을 마주할 시간적 여유를 가 수 없 다. 이제 우 엔 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 자의 굴 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다.

레비나 는 굴의 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굴의 리 을 통해 자에게 자신의 재를 등장시 고 있고, 굴을 마주하는 시간 자이는 자의 재를 게 다고 다. 그는 자와의 굴을 마주하는 간을 재 적 영역을 넘어 임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낯선

자의 곁을 보는 간 그냥 지나 수 없게 되고 곁의 등장은 윤리적 임으로 이어진다.<sup>14)</sup> 레비나 는 인의 곁을 통해 임감을 넘어 신의 근접성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인의 곁을 통해 신의 성을 고 동시에 신의 을 깨 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이처럼 레비나 의 윤리적 요청은 엔 믹 시대에 접어들어 더욱 절 요 하게 되 다. 인의 곁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 어 기 때문이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는 곁을 한 자의 모습을 접하기 어려웠다. 온라인(화 , zoom)으로 대면은 가 지만 직접 곁을 한 자의 모습을 마주하기 더더욱 힘들 다. 거기에다 마 를 한 자의 곁은 가면을 쓰고 나온 모습에 지나지 않 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간 은 더욱 어지게 되고, 자의 임에 대한 부채는 랫동안 지속되 다. 이로 인해 교회 한 사회적 임과 그 역할에도 소홀할 수 에 없 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19의 념의 자 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기는 해제되고, 마 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면서 은 사람들이 마 를 벗고 대중 교 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엔 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의 곁을 마주할 수 있게 되 다. 엔 믹이 시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 서 여러 모임 공동체들이 서서 모이기 시 다. 그 동안 미 어왔 교회 공동체의 회 과 자의 곁과 인에 대한 임 그리고 공동체 회 을 위한 우리의 로 방향이 모색될 때가 것이다. 이에 이 은 칼 르 의 모임 공동체와 레비나 의 공간의 성에서의 자와의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4) 성신 , “ 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 「 과 인식」, 38권(2014), 88-90.

15) 위의 논문, 91-92.

### IIIH ghs--'ÜŒE. e fi Ý Þ Ž DY ^k %Ž mfi à ß 3

‘‘Z \ [ ] 7 0\_ b Ga 7 NL # BO~ c; fi ed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에서 탈출한 우리 사회는 엔믹(endemic)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사엔믹을 선포했다.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지난 2020년 1월 20일 처음으로 진자가 생겼던 대략 3년 4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해제된 것이다.<sup>16)</sup> 정부의 이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엔믹 시대의 전환을 급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일회로 돌아가는 더욱 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온라인 설교와 예배에 해 있었다. 온라인 예배의 진정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이 있었으나,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적 신과 예배와는 사거리가 온라인과 화을 통한 개인주의적인 신과 예배에 해 있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기에 의해 어수 없는 을 염 에 면, 온라인 예배에서의 신 생이나 선교는 신자 양 에 대한 갈급 은 그 어 때보다 간절 을 것이다.

이제 엔믹이 선포되면서 차 사회는 일 회에 해지고, 교회 한 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엔믹의 시간은 코로나19 이전 과거 시대의 회기라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비대면 온라인에서의 신 에 해 다. 하지만 이제는 사적 공간이 지배적이 과거 코로나19와는 리, 공적 공간이 대되는 화가 목 되고 있다. 과거 온라인에서 이 어 모임과 예배와는 리 코로

16) “ 코로나19 ‘사 엔믹’ 선포 ... 리·마 의무 해제”, 합뉴, 2023년 5월 11일 기사.

나<sup>19</sup> 이전 교회 공동체에서의 경 과 공적 모임의 화가 로 다가  
게 되 다. 이에 우리는 공간의 화 즉 사적인 영역에서의 공간을 벗어  
나 공적 공간으로 이 되는 과정에서 공적 공간에서 이 어지는 신 공  
동체 생 의 재 을 요청하게 되 다.

칼 르 (K.Barth)는 개인의 단독적인 신 고 을 넘어 교회라는 공  
동체에서의 신 과 ‘관계적’ 삶을 다룬다. 르 는 개인적인 신 과 신학  
보다 공동체의 신 과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 다. 그는 신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 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르 는 개인의 신  
을 결코 경시한 적은 없 다. 하지만 개인도 공동체 안에서 재하고 공  
동체 안에서 이해되어 한다고 다.<sup>17)</sup> 그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서 ‘관계적 재’로서의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 다. 그는 공동체와  
하는 개인, 자와 관계 개인의 중요성을 하고 있다.

르 에서 ‘모임 공동체’의 징은 ‘하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하나 의 나라는 역사가 이어지는 간 간 신적인 가 성  
을 출 시킬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다. 하나 나라의 공동체는 이미 과  
거부 재해왔 것을 단 지속시 는 것이 아 라 하나 나라와  
인간의 삶과의 관계성을 중요시여기고 동시에 하나 과 인간의  
관계를 로 고 회 시 는 ‘관계적 공동체’를 한다.<sup>18)</sup>

르 는 교인들을 ‘성도들의 사 (Communio Santorum)’으로 불 다.  
그는 교회(Kirche)를 ‘공동체(Gemeinde)’로 다.<sup>19)</sup> 그는 교회라는  
‘Kirche’의 단어 이외에도 ‘Gemeinde’를 하는 을 교회로 사용 다. 다  
시 해 교회는 곧 모임이고 공동체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다. 르 는

17) 이성호, “사 으로서의 교회: 칼 르 의 교회 구”, 『역사신학논총』, Vol 36(2020), 227.

18) 이신 , 『칼 르 의 교회 』, (서울: 한들출 사, 2000), 55-56.

19) 이신 , “칼 르 의 예베 이해”, 『신학과 선교』 Vol 33(2007), 3.

《교회교의학》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조 다. 그는 우리가 아가는 공동체는 예수와 더불어 아가는 공동의 장소이고 예수와 성만찬이 이 어지는 이 한 우리가 아가는 공동체의 공간이라고 한다.<sup>20)</sup> 동시에 예수의 공동체는 하나 의 의해 세워 고 세 속으로 공동체이다. 기독교 공동체 세 을 위해 재하는 것이다.<sup>21)</sup> 르 는 예수의 공동체는 세 과 동떨어진 것이 아 며 세 속에 하며 세 을 위해 요한 공동체라고 보 다. 그는 개인의 신 보다 공동체의 신 과 삶을 우선시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어진 고 과 선 는 개인의 선 보다 우선시되고 개인이 그리 도인이 되기에 서 교회의 몸으로서의 지체임을 강조 다.<sup>22)</sup>

한 그가 한 교회는 관적이고 동시에 보편적인 공동체로서의 중성을 지녀 한다고 다. 교회 공동체는 호적인 관계성을 통해 단 적인 의 공동체로 나아가 한다고 다.<sup>23)</sup> 르 는 교회(Kirche)는 공동체(Gemeinde)이지만, 예수 그리 도의 생명력이 결여 되 다면, 그것은 단 한 교적 합체로서 피 적인 인간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sup>24)</sup>

무 보다 르 는 공동체가 세 을 위해 나아가 할 적극적인 조력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세 과 다를 없이 ‘ 은 ’이라고 다.<sup>25)</sup> 그는 교회 공동체가 세 으로 나가 할 사명을

20) Karl Barth, " #1\$ ?%&(.%&(\$6" #3-5, %2/"0Hhi-ZI 정옥 역, 『교회교의학IV/3-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03.

21) Karl Barth, " #1\$ ?%&(.%&(\$6" #3-5, %2/"0Hhi-Z, 309.

22) 이성호, “사 으로서의 교회: 칼 르 의 교회 구”, 227.

23) 김영관, “ 올의 신학에 기초한 칼 르 의 교회 ”, 『신학사 』, No.138(2007), 5.

24) Karl Barth, " #1\$ ?%&(.%&(\$6" #3-5, %2/"IV/3, 751; 김영관, “ 올의 신학에 기초한 칼 르 의 교회 ”, 7 재인용.

25) Ibid., 0Hhi-ZI 321.

가진다고 다.

르 는 《교회교의학》에서 교회의 설교와 하나 의 으로 선 되는 것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하고 있다. 그는 설교와 하나 선 를 하나의 ‘사 (event)’으로 다. 하나 의 선 와 교회가 하나 의 계시의 이 될 때, 그것은 사 이 다. 하지만 만약 그 지 않고 인간적인 기 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 이 아닌 것이다.<sup>26)</sup> 그가 한 사 은 토리(story)이다. 그 토리는 로 교회의 이 기이다. 단 역사적 으로서의 사 이 아 라 주체가 선명한 하나의 토리 인 것이다. 사 은 단 신학적이거나 교적이 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 도의 이 기를 한다. 교회는 이 적인 접근을 다 는 것이 아 라 임없이 조되고 게 신적인 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 어지는 장소이다.<sup>27)</sup>

르 는 이러한 하나 의 선 는 ‘빈공간’에서 생되지 않는다 고 다. 그것은 반 시 성에 근거해 있어 하고, 그 성은 하나 의 을 근거로 사도성의 덕택으로 성 다고 다. 선 는 사도들 의 가르침을 르며 동시에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는 정 적 이고 수동적인 식이 아 라 역동적으로 이 어 한다고 다. 그는 ‘기계 적(mechanically)’으로 이 어지는 신 의 모습이나 선 의 내용 이 아닌 하나의 사 으로서 우리에게 성서를 신 속으로 넣고 있다.<sup>28)</sup>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수동적인 신 과 예배에 여 다. 이러한 정 적인 신 의 는 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 르 가 지적 듯이, 기계 적 신 , 즉 여러 개의 퀴가 목적 없이 맞 려 돌아가

26) Geoffrey W. Bromiley, *0/%3'+d%3/'\*((\$" D(\$3.3-M" 3# ? , 6." <, 6\*(/" 신옥수 역, 『 르 교회교의학 개관』*, (서울: 리 찬다이제 , 2005), 24-25.

27) 이성호, “사 으로서의 교회: 칼 르 의 교회 구”, 235.

28) Geoffrey W. Bromiley, *0/%3'+d%3/'\*((\$" D(\$3.3-M" 3# ? , 6." <, 6\*(/" 25.*

는 기계처럼 수동적인 신 의 가 아 라 하나 의 계시적 사 에 동 하고 ‘역동적으로’ 모여 신 생 을 이어가는 성도의 자세를 하 고 있다.

엔 믹 시대가 접어들 다. 온라인에서 사적인 모임과 예배는 이제 공 적 공간으로의 화 속에서 모여 예배하는 로 고 있다. 코 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모임의 요성을 절 과거에 우리는 공적 공간의 해체의 불가피성을 경 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공적 공간의 회 을 경 하고 있다. 우리는 엔 믹 시대에 초대교회 모임 공동체에서 절 기도하고 힘 모여서 간구 신 을 회 하고 그 신 으로 공공성 의 방향성과 목 를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 하는 시대를 요청해 할 것이다.

Ź f gFU7 ĩ ; h 7 # i `P # i 7 k j h`

코로나19의 식이 지에 이르러 엔 믹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화들이 서서 목 되고 있다. 무 보다 사람들이 비는 대 핑 에서는 인 가 넘쳐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 들도 코로나19이 차 기를 되찾고 있다.

신 코로나 이러 생 이 , 3년 만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사가 열렸다. 2023년 부 절 레이 가 열리고 이 사는 개신교인 1만 명이 여할 것으로 예 다. 한국교회총 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 관광부가 원하는 이 사는 코로나19 이 , 3년 만에 개최되 는 프라인 사였다.<sup>29)</sup> 부 절인 지난 4월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다양 한 축제 분위기를 출하면서 3년 만에 대규모 사로 은 개신교인들이

29) “봄나들이 왔어요, 3년만의 대규모 사에 광화문 복직”, 조선비즈, 2023년 4월 9일 기사.





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그의 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sup>34)</sup> 그는 ‘장소’는 ‘어 개로서의 한 이아 라 하나의 기반(ground)이자 조 으로 보고, 장소는 기학적 공간이전에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 환경 이기에 서 하나의 기반이라고 한다.<sup>35)</sup>

레비나 는 인간은 재할 수 있는(서 있을 수 있는) 어 지 이 있을 때 그 을 시 으로 세계를 만 수 있다고 보 다. 그 서 인간은 서 있을 수 있는 지 을 찾아낼 수 있어 한다고 있다. 그는 하우 ( , house)라는 거주 공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은 하나의 에 불과하지만 을 중심으로 관적 세계가 펼쳐 있다고 한다. 은 단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의 정 이 시 되는 공간이다.<sup>36)</sup> 그는 인의 재에 대한 주체의 대 에서 윤리적 재의 근거를 찾고 있다. 인의 굴은 나에게 을 걸어 고 로 여기에서 자와 주체간의 대화가 시 다. 이 대화는 굴과 굴의 대화인 것이다. 인의 굴을 통한 소통이 이 어지는 이 장소가 로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다.<sup>37)</sup>

그는 ‘지금 이 ’ 그리고 ‘ 로 여기’라는 을 통해 자를 향한 ‘직접적인 러 ’을 하고 있고 로 이 에서 나의 직접적 이 출되는 이라고 한다. 그는 중단 없이 자와의 가까움과 임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자의 재 적 이해보다 더 근원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임을 제기하고 있다.<sup>38)</sup>

레비나 는 이러한 공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적 세

34) 위의 , 118,

35) 레비나 , 『 재에서 재로』, 116-119.

36) 강영안, 『레비나 의 학: 인의 굴』, 137.

37) 성신 , “ 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 94-95.

38) 김 , “레비나 그리고 가까움의 학”, 「 학과 학 구」 53권(2012), 13-14.

계가 시 되는 출 으로서의 공간은 인의 등장이 가 한 이다. 이 공간은 ‘ 성의 공간’으로서 인이 거벗은 굴로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 는 것이 아 라 ‘다정다감하게’, ‘다소 이’ 나를 아 들이는 인의 모습을 하는 이다.<sup>39)</sup> 레비나 의 이러한 성의 공간에서는 ‘ 제한 마 ’으로서의 윤리적 접근이 시 다. 이는 과학적이고 한 학문적 방법이 아닌 영 의 내부에서 자리 은 직감의 식이 다.<sup>40)</sup>

레비나 는 성의 공간에서의 ‘근접성(proximity)’<sup>41)</sup>에 대해 한 다. 그는 자의 굴이 사람 에 근접해 있고, 그 에서는 정지 가 아 라 지속적으로 재와의 관계성이 생성되는 이라고 한 다. 이 공간에서 단 근접성은 가까움으로서의 서로간의 호적 관계성을 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러 자가 로 내 에서 있다는 의미에서의 근접 경 인 것이다.<sup>42)</sup> 자의 굴은 항 우리 에 근접해 있다. 여기서의 근접성은 단 가까움 그 이 으로서의 호적인 것을 넘어서서 항 나와 에서 재하고 있는 것을 경 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근접성, 에 있 그리고 가까움은 윤리적 결단보다 선제적이다.<sup>43)</sup> 여기서 마주하는 자의 굴은 거것이 없이 직하게 을 걸어온 다. 어 한 가식도 없고 숨김도 없이 인에게 굴로 다가 는 재 이다. 이 과정에서 둘의 만남은 소통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만남은 단

39) 강영안, 『레비나 의 학: 인의 굴』, 139.

40) 김 , “레비나 자윤리학과 탈 대윤리학”, 41.

41) 레비나 가 한 ‘근접성(proximity)’은 인과 나와의 리적 근접성을 넘어서서 자 에 대한 입에 가 게 껴지는 학적 의미를 한다. Emmanuel Levinas, >“Uj+” \$\*0/%/% 김동규 역, 『윤리와 무한( 모와의 대화)』 (서울: 예라 무 총서, 2020), 109-110.

42) 성신 , 『 리 와 레비나 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들출 사, 2018), 64-65.

43) 성신 , “임마누 레비나 의 재 적 모 에 대한 구”, 『기독교사회윤리』, 33권 (2015), 194-195.

재 적 관계를 넘어선다. 이들은 윤리적 주체로 만들어가는 관계이다.<sup>44)</sup>

#### 4. TUV7 ml 6a < n ml G

서 레비나 는 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명 다. 이 공간은 낯선 인이 등장하는 이다. 이 에서 자의 곁을 마주할 수 있는 근접성이 가 하다. 자가 로 내 에 서 있는 으로서의 공간인 것이다.

한 공간에서의 자의 곁은 인식 대 이 아 라 곁 그 자체로 윤리적 호소와 임을 요청하고 있다. 자의 곁은 로 자신의 처지를 직하게 러내고 우리에게 윤리적 임을 요구하는 명 인 것이다.<sup>45)</sup> 레비나 는 ‘ 재’에 관한 에서 자아의 주체성에 정체 것이 아 라 보다 근원적인 문 즉 재의 지평선을 넘어서서 자와의 관계에 대해 문한다.<sup>46)</sup>

지난 과거 우리는 자와의 한 공간을 어 려다. 자의 등장이가 한 은 그 어 에도 없 다. 다만 온라인에서 낯선 자들을 수는 있 지만 내 에 서 있는 낯선 자와는 다소 거리가 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적 거리 기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 사회는 대면시 팀의 완 한 사회로의 이 과정에 들어 다.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은 사람들이 비는 지역 축제에는 은 인 가 린다. 교회 예배와 대 마 등 대다수 인 가 모이는 에서 사회적 거리 기는 해체되 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공동의 공 간에서 자의 곁을 제 어 서든 마주할 수 있게 되 다. 더 이

44) 성신 , 『 리 와 레비나 의 윤리적 대화』, 65-66.

45) 김 , “레비나 자윤리학과 탈 대윤리학”, 『 학논총』 23(2001), 42.

46) 성신 , “ 재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 『 과 인식』, 88.

마 를 쓰고 굴을 가린 자가 아닌 직한 모습의 굴을 한 수한  
자의 굴을 마주보게 것이다.

엔 믹 시대의 시 은 과거 코로나19 이전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 기 해체라는 징성도 있 지만 이젠 마 를 쓴  
자가 아닌 마주 굴을 보면서 자의 삶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자  
의 굴 속에 숨어 있는 아픔과 편까지도 내다 수 있게 만들 다.  
엔 믹 사회는 이제 내가 아닌 자의 아픔까지 보 껴 되는 공동체의  
임까지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다.

레비나 에게서 자의 아픔과 고통은 여진 공동체 안에서의 임의  
영역에 서 있다. 인의 절규는 공동체가 맡아 할 임인 것이다.<sup>47)</sup>  
하지만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자와의 리적 간 이 어 수  
에 없 다. 이제 엔 믹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자의 고통과 공동체  
의 임에 대해 서서 고민해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레비나 에게서의  
사회적인 임과 윤리는 단 이 적 사유에 그치지 않는다. 윤리적  
임은 인간 위의 동기를 하는 것이 아 라 자의 굴에 대한 응  
이고 임이다.<sup>48)</sup>

(I. Kant)는 우리에게 ‘무조 적 의무’를 제시해왔다. 그는 ‘의무  
(duty)’를 윤리의 중심에 놓은 최초의 학자이다.<sup>49)</sup> 이성적 채로서의  
인간은 보편법 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법 을 무조 적으로 수 해  
한다고 다. 우리가 가진 자 성은 우리 로가 도덕법 을 만들고  
이 해 한다는 의무 적 윤리를 제시 다.<sup>50)</sup> 그는 우리가 마 해

47) 박원빈, 『레비나 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84-85.

48) 성신, “임마누 레비나 의 재 적 모 에 대한 구”, 197.

49) Richard Norman, *D(\$ Q36,.. F(%3)3B(\$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71.

50) R.L.Arrington, "A\$)\*\$6/">\*(%&)]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278-279.

할 도덕적 요구는 정적(categorical) 명제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제시한다.<sup>51)</sup> 이는 무조건적으로 할 도덕법칙은 이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어 하고, 의무는 하이지도지 않는다고 다.<sup>52)</sup> 이처럼 의무적이지 않은 ‘이러저러한’에서 마치 이계 위해 한다는 당위가 부과되어서든 우리는 제나진만을 해하는 원인을 주장한다.<sup>53)</sup> 이는 우리에게 거짓의가 성까지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당위의 법에라도 동하는 의무적이고 법칙 윤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레비나 는 윤리적 임은 의무나 위의 동기를 넘어서고 자의 삶에 대한 임이라고 한다. 레비나 는 우리가 단지 ‘의무감’에서 비롯 선한 동이나 남을 위한 도덕적 위가 아니라 자의 굴에서 나는 약에 대한 ‘다가감’이라고 한다. 레비나 는 우리가 자에게 한 공간에서 서 없이 만나기를 요구한다.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자에게 ‘다가감’의 친이 무보다 중요하게 것이다. ‘다가감’은 공간의 동시적 체과 모임에서 가하다. 성경에서도 자에게 다가감의 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와 하는 시간이 마나 중요한지 다고 있다.

사도 전은 공동체에서의 ‘합(unity)’에 대한 강한 열을 해주고 있다. 사도 전에서 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 되는 공동체에서의 ‘기’과 ‘(성도와의) 관계성’이다. 사도 전이 기되

51) James Rachels, *D(\$>.\$5\$/\*)"3# Q36,..F(%3)3B(M*, New York: McGraw Hill, 2006, 120-121

52) W.S. Sahakian, Ethics:  $\wedge/0/63'+\&*3/'*3'D(\$36\$)"//'F63U.$5]$  · 경식 역, 『윤리학의 이과 역사』 (서울: 박영사, 2002), 169.

53) William K. Frankena,  $>*(\&)/'$  경식 역, 『윤리학』 (서울: 학과사, 2003), 46-48.

지 않다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과 공동체의 삶은  
우 찾기 어려울 것이다.<sup>54)</sup> 사도 전에 기 “항 마 을 이하  
고 성전에 다 이 모이기를 힘쓰고 에서 을 며 서로 기 과 전한  
마 으로 식을 나 먹고 하나 을 찬미하며 온 사람에게 을  
으 주 서 구원 는 사람을 일 더하게 하시 라”( 2:46-47)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을 그 어 보다 명 하게 제시하고 있다. ‘  
모이는 공간에서 동시적 공간의 체 과 한 교제가 이 어 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되는 ‘ 는 사람들이 있어( 2:44)’의  
은 모여서 신 생 을 하는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다. 당시  
교인들에게서 수천 명의 으로 이 어진 대 모임이나 회는  
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자들이 모임에 열심을  
내고 서로 각자의 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적 차원에서도 돕고 서  
로의 위로와 사 의 가치를 소중 여겼다는 것을 보여 다.<sup>55)</sup> 그들은  
‘ ’ 모여 을 며 모이기에 최선을 다 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  
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하고  
있다.

신약성서에 나온 예수의 성만찬은 대 적인 티 임 공동체라고 해도  
과 이 아 다. 예수의 성만찬은 어 한 성 을 가지고 있 에 주목하  
지 않 다. 려 마지 만찬이 이 어진 이 성만찬이 초대교회로  
이어 그 전통이 여전 남아 있다는 것에 주목해 한다.<sup>56)</sup> 성만찬의  
전통은 일회적인 위가 아 라 초대교회로 이어지면서 역사성을 지닌

54) Donald Guthrie, "KSS"DS)\*, 5\$/\*\*0/%63'+&%3/, 나용화·박영호 역, 『신약개 』,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340-341.

55) 제자원, 『그랜 합주 사도 전』, (서울: 성서아 미, 2004), 81.

56) 박해정, “초대 교회 성만찬 구를 통한 개신교 예배 방향 모색”, 『신학사 』, No.130 (2005), 143.

전통으로 기 되 다. 이 전통은 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구심력이 되고, 교인들 사이에서 성만찬을 기 하며 성도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 다. 뿐만 아 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여 ‘에서 을 며’ 항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당시 초대 교회 시절 공식적인 모임 즉 성전이나 회당에 모였다. 그들은 각자 에서 은 규모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 다. 그들의 모임은 일시적인 목적이나 교적 사가 아 다. 그들의 모임은 ‘지속적인 관계성’이 하는 만남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 과 거 열정은 그들의 모임에서 찾을 수 있 고 모임에 소극적인 신 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리 게 되 다.<sup>57)</sup>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 기로 인해 ‘관계성’이라는 을 시 서 속에 넣어 다. 그 동안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한 관계적 재,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이라는 사회적 용어보다는 거리 기, 떨어 있기, 온라인으로 결하기 등의 용어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대 다. 하지만 엔 믹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다시 ‘관계성’이라는 과 그 용어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기회들이 주어지게 것이다.

으로 레비나 는 엔 믹 시대에 우리에게 한 공간에서 자와의 만남을 주저하지 것을 제시한다. 성경에서 듯이, 가까이서 제자들과 과 과 도주를 나눈 예수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합을 이 기 위해 항 ‘모이는 공간’에서 을 며 서로 나누는 사도 전의 가르침처럼 코로나19를 보내고 엔 믹 시대에 다시금 요한 사명이 되 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당시 사람들의 심리는 그 어 때보다 위축되고 힘들 다.

57) 제자원, 『그랜 합주 , 사도 전』, 81.

시민들은 마 대 을 겪고 정수리까지 려서 아픈 의 PCR 검사 는 다시는 고 지 않다는 불안을 호소 다.<sup>58)</sup> 뿐만 아 라 신 집 부 용은 은 사람들에게 공 가 되 다. 접촉자 리도 시민들 을 힘들게 다. 누 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동선을 공개하고 주위의 눈치 를 수 에 없는 환경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수 없게 다. 이제 이 어 의 시간을 보내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모임 공동체, 레비나 가 우리에게 제시한 한 공간에서 자의 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요청해 할 것이다.

## I \ Hb ± + M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시대의 주소를 시 으로 코로나19가 가 온 패러다임에 대해 펴보 다. 코로나19는 사회를 비대면 온라인 시 템 으로 전환시 고, [인간-인간]의 수평적 만남을 허용하지 않 다. 그 2~3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엔 믹 시대를 선 하면서 사람들은 마 를 벗거나 대면으로 모임 등의 동을 할 수 있게 되 다. 교회는 성전에서 주일예배를 릴 수 있게 되 고 소규모 성경공부와 신 을 위한 그룹 동이 재게 되 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무 은 위축을 고 동시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소외 사람들도 시 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교회는 엔 믹 시대에 접어들어 소외 되고 아픈 사람들 으로 다가서는 공동체가 요청되 다.

마 부 (Martin Buber)<sup>59)</sup>는 ‘나와 ’의 관계에서 는 거주하는

58) “코로나 40개월 …시민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것”, 뉴 1, 2023년 5월 11일 기사.

59) 부 는 “ 자가 걸어온 은 우리가 그(녀)와 마주쳐지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그(녀)의 을 지 못하다. 다만 자와 하는 공간 안에서의 만남 속에서 그것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Martin Buber, 0&("/'/" #+| 재명 역, 『나와 』, (서울:



공간 안에서의 관계를 맺는 인을 한다. 거하는 공간에서의 거주를 통해서 주체는 세계를 하고 관리할 수 있게 다.<sup>60)</sup> 이제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전 세계는 엔믹 시대로 접어들다. 교회는 개인적 신의 시간에서 공동체의 신생로의 전환을 목전에 고 있다. 르는 《교회교의학》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 그는 우리가 공동체의 공간에서 신생을 해 하고, 예수와 더불어 아가는 공동체 공간에서 성만찬이 이 어지는 신을 요청 다. 르가 개인의 신을 도외시한 적은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모여과 도주를 며 신생을 하는 공동성을 무보다 강조 다.

서 급 듯이, 르는 교회 공동체와 세이 분리되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에 의해 세워지고 세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다. 기독교 공동체 세을 위해 재한다.<sup>61)</sup> 그는 공동체가 세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다.<sup>62)</sup> 르는 교회 공동체가 세과 분리되지 않고 세으로 나아가 하며 세에 요한 재라고 보 다. 그는 교회가 사회적 임을 지고 사회의 아픔을 나누어 할 임을 가진다고 보 다.

그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보다는 ‘거리기’,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시간’을 더욱 공화시 면서 모임 공동체의 시간이 어들게 되다. 이로 인해 당 공동체의 대의식이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으로 지게 것이다. 코로나19를 해쳐 나가기 위해 력과 재난 대응을 위한 공동체의 대의식은 강하게 출되 다. 하지만 우리

---

문예출사 2001), 99.

60) 강영안, 『레비나 의 학: 인의 굴』, 139.

61) Karl Barth, " #%" #&(.%&(\$" #3-5, %2]" 0Hhi-Z, 309.

62) Ibid., 321.

사회는 자의 곁을 보고 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대적 삶의  
천은 소홀 해왔다.

우리는 모 가 하나 범죄하여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한 인  
간이 하나 에서 서로 대의식을 갖고 돕는 삶이 로 하나 에  
서 의 다고 인정 을 수 있을 것이다. 인의 향한 헌신과 사는 직  
대를 통해 가 하다.<sup>63)</sup> 한 그 대의식의 은 직 자의 곁을  
마주 때 짝 피어 를 것이다.

엔 믹 시대에 ‘ 굴마주보기’의 사회는 우리에게 무 보다 자의  
곁을 통한 공감을 얻어내게 만들고 있다. 공감은 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악하고 자의 사고와 정서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력을 한  
다.<sup>64)</sup>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한 우리 사회는 감염 과 팬 믹 위기와 재난  
의 아픔을 경 하고 나서 이를 통한 민과 령움을 극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 다. 재난을 통해 한 도 안면이 없는 낯선 자와의 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성하기도 다. 그들과 역 을 아내기 위해  
구가 되기도 하고 호간의 력자와 조력자가 되기도 다.<sup>65)</sup> 우리는  
지난 코로나19의 팬 믹 기간 동안 마 를 한 가면의 곁이지만 자  
의 곁을 마주하고 자의 아픔에 공유한 기억들을 가진다.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 없이 감염 산을 기위해 손수 감염지로 령가  
는 수 은 의사와 간호사들 모 가 자의 곁에 비춰진 사회적 무를  
다 다. 우리는 팬 믹의 공 에서 위기를 극 하고 엔 믹 시대를 맞이  
하게 것이다.

63) 최경 , “ 력에서 대로”, 『기독교사회윤리』 53권(2022), 129-130.

64) 이 원, 『 생양과 호모 사케르』 (대구: 계명대학교 출 부, 2019), 267: 이 원, “협  
에서 공감과 환대어로”, 126 재인용.

65) 이 원, “협 에서 공감과 환대어로”, 127.

우리는 대면 시 팀의 사회구조로의 완전한 회 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향해 할 과제를 부여 다. 엔 믹 시대에 요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신 은 ‘관계성’ 맺기부 시 해 한다. 자와의 관계는 무 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대인관계의 을 가 왔다. 이제 엔 믹 시대로 전환 시 에서 우리는 [인간-인간]의 관계성에서 시 되는 모임 공동체의 요성을 다시금 재 인해 할 것이다.

엔 믹 시대에 교회는 자의 곁에 비 을 고 사 을 친하면서 소의 자에게 나아가 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회적 대를 위한 교회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이 요하게 되 다.<sup>66)</sup> 무 보다 우리가 엔 믹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우리는 어 위의 옳고 그 에 대한 원 이나 천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우리 내면에서 묻어 나 는 성품과 가치이다. 그것은 일련의 규 도 아 고 우리 로가 내면에서 성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만들어가 하는 것이다.<sup>67)</sup>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한 것은 의무감에서 비롯 도덕적 규 이 아 라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사회 공동체와 자에게 하 는 것이다. 우리가 무 을 하기 보다는 이 게 저 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자를 이해하고 남을 나처럼 대우하려는 도덕적 성품이 절 하게 되 다.<sup>68)</sup>

으로 우리는 레비나 에 한 한 공간에서의 자와의 만남을 기억해 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한 공간 안에서 자로의 입을 요청한다. 그는 단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러 있기를 리는 것이 아 라 자에게 다가서기를 원하고 있다. 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 올려주는 우리들의 내면적 성품이 요하게 것이다. 엔 믹

66) 최경 , “ 력에서 대로” 133.

67) William K, Frankena, >\*(%)” 156-157.

68) Ibid., 158-159.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 교회는 그동안 진 해 왔 지역 사회를 기  
고 사회의 이 되는 역할을 더 장시 나가 할 것이다. 엔 믹  
시기에 교회는 세 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다. 엔 믹 시대에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 국민들을 위해 사회로 나아가 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를  
겪으며 힘들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예수 그리 도의 사 과 화해 그리고 성도들의 모범은 그  
어 때보다 중요하게 되 다.

## 참고문헌

- Arrington, R.L. *A\$)\*\$6/" >\*(%&)*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 Barth, W. *『 G. fl IV/3-2』. Š. : H " ~ i . Š G*, 2005.
- Buber, M. *『 V " B , 『 , > ' 』. Š. : K Ç È \ 2001.*
- Frankena, William K. *『 á ± B , 『 fi / † 』 (Š. : † % † ' \ , 2003.*
- Geoffrey W, Bromiley/C. *『 ÷ B , 『 t Â ' . G. fl † h R』. Š. : / [ Ú w) [ , 2005.*
- Guthrei, D. *『 Ò 4 · B ~ f B . 『 c q h " 』. Š. : ~ i . K Š ñ . G*, 1988.
- Levinas, Emmanuel. *『 2 A a B , 『 fi / > ' ü " (x g ' è > fl H 4)』. Š. : O Á [ ü [ ' è Š , 2020.*
- fi fi fi ./ Š A Í B , 『 V O Š ' V Ł m』. Š. : , \ , 2011.*
- Norman, R. *D(\$ Q36, . F(%3)3B(\$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Pojman, Louis P & Fieser, J. *『 B Ú 6 ' Ý ' 3J B , 『 fi / † 』. Š. : . 8 Ç È \ , 2011.*
- Rachels, James. *D(\$ > . \$5\$/\*) 3è" Q36, . F(%3)3B(M™* New York: McGraw Hill, 2006
- Sahakian, W.S. *『 á ± B , 『 fi / † fl ' w " % B \ 』, Š. : B ~ \ , 2002.*
- ¥ ~ Á , 『 Ü , [ fl ' † : J fl ' 』, Š. : K † % ' 1 \ , 2020.
- : a ~ Ý ' 16J . 『 m, \ w' [ 』. Š. : A u - u , 2020.
- 2 ÷ | , "Ö Ç O ' ñ . -Q ñ ö > ' " fl ' 7 4 . " 『 Q % ' ñ . , ) 29" (2015), 11-46.
- 2 ÷ Í Ý ' 12J . 『 ö [ m, \ G』. Š. : Z Š Ç È ™ u / , 2020.
- 2 ~ R. "t · fl c † O ~ " ' t Â fl ' G " . " 『 c † \ d』, No.138(2007), 147-178.
- 2 × , " Ü , [ ; / : ' z fl ' Í d † . " 『 † % † d † ' \_ 6』, 53Ö(2012), 13-14.
- B , W. " H ' G ' 1 Ú ' \_ 6 / ' Ô " ' h c . ' » ' · € ' è é . " 『 c † \ d』,

No.130(2005), 143-173.

β § , 『 Ü , [ > ~ i . . Š . ' / u , 2010.

2 \_ , “ Ü , [ ' Ł fi / ł % ' Ā H fi / ł . ” 「 ł « ê 」 , 23(2001), 42.

1 c D. “ ¶ ' Ü , [ fl ' V " O ' è O ' H " \_ 6 . ” 「 i . \ G fi / 」 , 33  
Ö (2015), 194-195.

fi fi fi . “ V fl fi | O ' H " ' fi / O ' 3 . ” 「 Ī d % J ± 」 , 38Ö (2014), 94-95.

fi fi fi . 『 / > ' Ü , [ fl ' fi / O ' H 4 . Š . : “ Ç È \ , 2018.

fi fi fi . “ ¶ ' Ü , [ fl ' V " O ' è O ' H " \_ 6 . ” 「 i . \ G fi / 」 , 33  
Ö (2015), 194-195.

1 - μ ' Ÿ , 6J . 『 ö [ m , > ' G fl | ò . Š . : ! " fl ' á ± , 2021.

Ā V á . 『 m , ' » ' ĉ â . Š . : = [ , 2021.

I ^ μ . “ “ ~ i . J fl ' Ā J ' » O ' H " ' á % ' Z \_ 6 . ” 「 i . Ö  
« ê 」 , ) 72 ” (2002): 225-244.

w1 f . “ \ ġ o m Š fl ' ġ G : ' t Ā fl ' ġ G " \_ 6 . ” 「 B \ c ł « ê 」 , Vol 36  
(2020), 223-253.

wc ġ . “ t Ā fl ' » ' w . ” 「 c ł % ñ . 」 Vol 33((2007), 1-12.

fi fi fi . 『 ' t Ā fl ' ġ G " . Š . : “ Ç È \ , 2000.

w × § . “ < v O Š ž Z % ' H O m . ” 「 i . \ G fi / 」 , 49Ö (2021), 113.

fi fi fi . 『 £ ! á % f è \ Ā . H 6 : < " H ĩ . Ç È ā , 2019.

) Ł § . 『 ; ' × k ? \ Z — ĉ . Š . : 1 Š u L | , 2004.

á , “ i 8 O Š \_ H m . ” 「 i . \ G fi / 」 , 53Ö (2022), 129-130.

= £ Ÿ ' 15J , 『 m , ' - H " ' fl | ò . Š . : Š . , 2020.

“ ¼ fl Z Q ġ G ? S ' Ā J ' » ' ĉ ” . ° , Y î , 2020 ' 8® ' 18Y ~ \ .

“ m , ' 40h ® ' fl - , ' z ^ ~ O ' ù \* ' ^ Ū , w ” . [ 1, 2023 ' 5® ' 11Y ' ~ \ .

“ v ' m , 19 \ ' d ' N L M ' ñ ' fl / . [ ' fl ü ' , ) ” . \_ k [ ' 2023 ' 5® ' 11Y ~ \ .

“ v ' ĉ ° Š ' ā ' » . | \ fl 4 K ' Y H ' H ' a è ' F w ” . \_ k [ , 2023 ' 4® ' 9Y Ł ~ \ .

“ , w' ' , 3 fl 'H<sup>a</sup> è '—\ O' 4 K ' O". 7 ñ Ü , 2023 '4® '9Y ' ~ \ .  
“ç ' = < ' m, \ ' 690 " ”. K 4 Y î . 2021 '5® '7Y ' ~ \ .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22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국문 초록 •

É/ \* 10 p ^ 10 š 1 m, 19 - Hfl ÜHÜ \ G/ 'æ 10 . wm'J „ ,  
 G\* 11 Ç OS 1 » / 10 10 10 10 . ] a è è % ; 10 Aµ'W  
 10 : , cí ! # '\$ 10 µ è 7° Z ù Ò . 10 10 10 10 u Á É /  
 \ Gz 10 m, 19/ 10 \* AĀ \ 10 µ n / Oom 10 ü 10 µ \$ # á 10 .  
 m, 19w5 'NLM' - Hz 10 v Ů Š , É / \ G\* 'HÜ' - [ fl Ç om Æ?  
 + 10 10 10 . G\* 11 Ç OS 1 » / 10 10 10 10 : , ] a è 1 á ž ā >  
 cí # '\$ 10 ; 10 A w V 10 .

É/ \* 'HÜ' - [ fl \ G 6 7 mfl 10 Ç 10 GQ# 10 Ç O 10 : 10 10 Gz  
 ^ € „ 10 T 10 m 10 %) / 10 ā 1/4 10 10 p 10 Ü , [ z 10 É / O 10 HĀ # 10 ) -  
 + : 10 10 . Ü , [ \* 10 Ł > 10 u 10 % : Ōw ž AP Ā Ō Š fl ō fl ~ BwÁ  
 : 10 10 . NLM' - HO ; \* É / O 10 “ 10 ” ž SOŠ 10 Ł fl 10 # 10 ?  
 î \* 10 ù # 10 z ^ Á ” : 10 w 10 . Ł fl 10 w 10 É / / 10 / : 10 : 10 w )  
 ; 10 z w 10 Ø 10 10 10 . Ł fl 10 O 10 , š 10 u µ É / ž AP fl  
 w 10 .

주제어: ö [ 10 m , , NLM, HÜ \ G , R < 1 fl ž S , 1 , 10 10 ž AP